

호남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사립명문 발돋움

남부대·순천대·초당대·목포가톨릭대 등 광주·전남 5개 대학 선정

호남대학교를 비롯한 남부대학교·순천대·초당대·목포가톨릭대 등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5곳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부여하는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광주보건대·전남과학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기독교간호대·서영대·동아인재대·전남도립대·순천제일대·청암대 등 10개 전문대는 ‘2013년도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는 대학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 및 일반 국민에게 대학교육의 질 평가를 통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 평가제도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13년 현재 총 194개 대상 대학 중 157개 대학(80.9%)이 신청했으며, 평가결과

151개 대학이 인증(인증 148개교, 조건부인증 3개교), 6개 대학이 인증유예 판정을 받았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2014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여부 및 재학생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학기관평가 인증은 대학재정 및 경영 대학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교육시설 교육 사회봉사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등 6개 평가영역, 17개 부문, 53개 평가준거로 이뤄진다.

총 24개 평가단, 120명의 평가위원이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검증, 평가단장 최종 검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대학을 선정한다.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심사

대학 49개교와 지난해 보완심사대학 23개교 등 총 72개교에 대해 심사·평가해 30개교를 인증했으며 12개교는 조건부인증, 3개교는 인증유예, 4개교는 불인증 결정을 내렸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제와 전문대 모두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다.

호남대학교는 지난해 9월 서면평가와 10월 현지방문 평가를 거쳐 6개 평가영역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호남대는 국제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음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 개교 35주년의 전통을 이어 ‘교육명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호남대 박상철 기획처장은 “최근 몇 년간 교수·학생·직원 등 전체 대학구성원들이 대학경쟁력 강화와 대



호남대 이양원 경영평가실장(오른쪽)이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인증 수여식에서 호남대학교를 대표해 인증패를 받고 있다.

학교육의 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를 공인받은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교육명문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

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광주대, 장보고 글로벌 마케터 중 상하이 현지조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장보고 글로벌 마케터 양성과정 학생과 교수, 관련 기업 담당자 30여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마케팅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상해 현지 활동은 광주대 가족회사와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중국 기업체 방문 및 CEO 인터뷰, 상하이 주재 한국상인연합회 관계자 면담, 중국인의 한류 문화 선호도 및 음주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장보고 글로벌 마케터 양성과정

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현장 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창조융합형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보해양조, 온돌라이프, 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등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장보고 글로벌 마케터 양성과정은 지난 10월 장보고캠프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학생들은 3개조 10개 팀으로 구성해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주류 문화와 리빙 문화, 한류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김광용 교수 ‘유해해양생물연구단’ 운영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광용(사진) 교수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연구단’을 이끌게 됐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총 3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이 연구단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김 교수 등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교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6개 대학 10여 명의 교수들도

연구에 참여해 플랑크톤·아열대생물, 적조생물·해파리, 저서동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생물확산 및 이동경로 예측기술 등 세부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을 예방·방지·완화·제거하는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연안환경 개선과 친환경 복원을 위한 정책결정과 국제협약을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흥노 GIST 교수, 과학기술자상 수상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고해상도 저복잡도 정보 획득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이흥노(48·사진) 교수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월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부호이론적 압축센싱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패러다임을 통해 빠르고 쉬운 고해상도 정보획득기술을 실현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기존 정보·통신·신호처리 시스템은 원하는 해상도에 비례하는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신호복구를 위해 거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적은 양의 데이터를 고

해상도로 압축, 복구하는 방법을 개발해 신경공학 및 광학분야 국제학술지 하이 라이트 우수논문(2012년 12월)과 최신이슈논문(2013년 4월)으로 선정될 정도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교수의 연구성과는 기초연구에 머물지 않고 차세대 협력통신, 보안통신, 센서 네트워크, 플래시 메모리, 고해상도 분광기, 뇌-컴퓨터 접속 시스템, 초음파 이미징, fMRI, 셀 이미징 등에 응용될 수 있어 정보통신 분야 핵심 화두인 거대 데이터 처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향교, 올핸 미래 세대와 함께 한다

동신대 평생교육원,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 학교’ 운영

인문학 강좌·예절교육 등 전통문화 전승·활성화 기대

목사고을 나주의 향교가 전통문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현대적 선비문화 발전소로 거듭난다.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조준 교수, 사회복지학과)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나주시와 함께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선비문화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향교에서 매달 품격있는 인문학 강화를 개설하고 문화 행사와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통문화 전승의 장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 학교는 크게 나주선비아카데미, 미래세대 창

나주 선비 아카데미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강좌와 함께 선비들의 풍류 문화인 시조창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현대적 선비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 3개월 과정의 전통문화 이음이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석전의례 전문가, 청년 유림(의례 지도사), 나주야기꾼 등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미래세대 창의 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아카데미, 청소년 아카데미, 유치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 아카데미가 개설된다.

대학생 아카데미는 1박2일 과정의 성년 교육과 성년식이, 청소년 아카데미에서는 2박3일 과정의 역사와 철학 교육이, 예절아카데미에서는

예절교육이 이뤄진다.

동신대 평생교육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문화유산을 토대로 나주시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 재생에 필요한 문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는 한편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조준 동신대 평생교육원장은 “나주향교는 한국 향교건축의 상징이자 나주의 상징이며 굿은 소나무는 지역을 지키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면서 “교육, 의례문화 전승 등 향교 본래의 기능에 현대적 인문학 교육을 가미하고, 쉽고 재미있는 전통문화 교육콘텐츠를 운영해 향교를 미래 세대들에게도 친근한 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보 2천만원에 월100만원 임대가능
대출 8,000만원 가능
시세/분양가, 2억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사정상 “매매”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편의점 임대 중
(보 3천만원에 월 125만원)
대출 8,000만원 가능
시세/분양가, 2억 5천만원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 20% 보장
3. 경매물건 사실 분!
최소비용으로 처리
4.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